

## 비슷하되 같지 않은 길: 재한 미얀마 카렌족 공동체의 형성과 발전\*

이 상 국\*\*

### I. 서론

2015년 12월 23일 이른 아침, 어둠을 헤치고 인천공항으로 갔다. 태국 난민촌에서 살던 미얀마 카렌족 난민 22명을 보기 위해서였다. 한국 정부가 난민 제삼국재정착 정책을 시행하면서 이들을 데려왔다. 성탄절을 이들 앞두고 데려온 것은 한국사회에 ‘성탄절 선물’을 안긴다는 극적인 효과를 노렸기 때문이다. 2015년 9월 초 터키 해변에서 시리아 난민 아이의 애처로운 주검이 한국을 비롯해 온 세계에 걸쳐 난민에 대한 연민을 불러일으킬 때만 해도 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그러나 두 달이 지난 11월, 끔찍한 파리 테러의 배후에 유입된 난민이 있을 것이라는 의심이 일며 그 연민이 일순간 극도의 혐오로 바뀌자 한국 정부는 당초의 계획과 달리 무척이나 차분하게 데려왔다.

이들이 한국에 올 것이라는 얘기가 퍼지면서 300명가량<sup>1)</sup> 되는 재

---

\* 이 논문은 2014학년도 연세대학교 미래선도연구사업 지원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 (2014-22-0133). 이 논문을 읽고 유익한 논평을 해준 김현미 선생님과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감사한다. 이 논문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전적으로 본인 책임이다.

\*\*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부교수. caskl@yonsei.ac.kr

1) 이 숫자는 카렌족 공동체 모임에 참여하는 인원이다. 그 인원을 500명가량으로 추산하는 사람도 있다. 참고로, 2015년 12월 말 기준으로 한국 체류 미얀마인은 19,209명

한 카렌족 공동체의 기대는 커져갔다. 한국어를 잘하는 몇몇은 통역과 정착 안내자로서 난민들과 한국 정부 사이를 잇는 역할을 부여받았다. 비록 한국 정부의 겸소한 환영 기조 탓에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공동체 차원에서 공항에 나가 꽃다발과 선물을 증정하며 동족 난민들을 뜨겁게 맞이할 수 없었지만, 그 통역관이자 정착 안내자인 카렌족은 한국 정부 관료와 유엔난민기구 한국지부 대표와 더불어 면세 구역에서 이들을 맞이했다. 나는 그 특권을 갖지 못해 이들이 도착장 맞이 구역으로 나오기만을 서성이며 기다리고 있었다. 이윽고 입국장 출입문이 열리고 재정착 난민 무리가 내 앞을 지나간다. 인솔하는 한 카렌족 여성이 나를 보고 반갑게 인사한다.

그 여인의 이름은 라에노<sup>2)</sup> 내가 라에노를 처음 봤던 때는 1998년 봄 무렵이었다. 나는 그때 A교회의 미얀마 공동체 모임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다. 라에노의 얼굴이 무척 하얗게 창백(Chin)<sup>3)</sup>이 주류였던 그 미얀마 공동체에서 도드라졌다. 당시 카렌족 난민을 연구하던 나에게 자기도 카렌족이라는 말을 하면서부터 우리 사이가 가까워졌지만 1999년 가을 즈음 라에노는 그 교회를 떠났고 나는 그 후로 그녀를 보지 못했다.

라에노를 다시 만난 때는 거의 16년이 지나서였다. 나는 재한 미얀마 카렌족 공동체 연구를 2014년 11월에 시작하면서 카렌족의 소재를 찾다가 기독교인 카렌족이 서울의 B교회에서 주로 모인다는 말을 듣고 2015년 3월 15일에 그곳으로 갔다. 16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

이다(법무부 2015). 여기에는 종족별 구분이 되어있지 않다. 카렌족 공동체 지도자들은 대략 그 인원의 10%를 카렌족이라고 본다. 그럼 약 2,000명가량의 카렌족이 한국에 거주하는 것인데, 공동체 활동하는 인원이 그보다 적은 이유는 그 활동이 주로 수도권, 특히 카렌족이 주로 거주하는 인천(부평, 남동)과 부천, 그리고 서울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2) 가명이다. 언론에 공개된 인물을 제외하고는 이 글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은 모두가명으로 한다.

3) 미얀마와 인도 국경 지역에 거주하는 소수종족이다.

라에노와 나는 보자마자 서로를 알아보았다. 그 후 2016년 3월까지 나는 카렌족 행사에 참여관찰도 하고, 수차례의 비공식면담과 심층면담을 통해, 라에노가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카렌족 공동체 결성과 발전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재정착 카렌 난민의 삶에 어떻게 관여하고 있는지 들었다.

다시 2015년 12월 23일 인천공항의 그 현장으로 돌아가면, 그곳에 라에노와 함께 꼭 있어야 할 사람인데 없어서 아쉬움을 자아내는 한 사람, 부재로써 현존을 증명하는 한 명의 카렌족 남자가 있다. 그의 이름은 모사린. 라에노와 달리 내가 그를 알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미얀마 정치망명가를 연구하던 중 그의 이름이 자주 언급되자 수소문하여 2015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여러 차례의 비공식면담과 심층면담을 통해 그가 한국에서 살면서 어떻게 정치활동에 가담하여 난민지위 인정을 받고, 나아가 카렌족 공동체 건설에 중심인물로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알게 되었다.

본 논문은 그 두 사람 얘기를 중심으로 재한 미얀마 카렌족 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을 다루고자 한다. 누군가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얼마나 대표성을 띠고 있는지 물을 수도 있고, 사례가 적다고 지적할 수도 있겠으나, 라에노와 모사린은 재한 미얀마 카렌족 역사의 산증인으로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에 매우 큰 역할을 해왔기에 충분히 대표성을 지녔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이 취한 방법론은 반(半)생애사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본격적인 생애사가 아닌 까닭은 두 사람의 생애 중에 한국 거주 기간을 주로 살피고 개인의 삶보다는 공동체의 결성과 발전에 더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위해 두 사람 이외에도 2014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여러 사람과 공식적·비공식적 면접을 수행했고, 카렌족 공동체의 각종 행사에 참여관찰 했다.

본 논문이 주장하는 바는 재한 카렌족 공동체가 미얀마인이라는

큰 우산 아래에서 자기를 구분하는 과정을 겪어왔다는 것이다. 그 구분의 과정에서 본 연구는 세 특성을 주목한다. 첫째, ‘초국가성’이다. 중요한 길목마다 카렌족 정치 지도자의 한국 방문과 범카렌족 연대활동과 같은 초국가적 자극이 그 구분을 부추겼다. 둘째, ‘고유성’이다. 새해 기념일 같은 카렌족의 고유 의례가 공동체를 동원하고 자기정체성을 표현하는 장으로 활용됐다. 셋째, ‘난민성’이다. 한국의 난민정책이 난민으로서 카렌족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구실을 했다. 이 세 특성들이 발현되지 않았던 정착 초기(1990년대 말)에는 카렌족은 다른 미얀마인과 비슷한 길을 걸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해외 카렌족 정치 지도자의 방문이라는 초국가적 자극을 받아 공동체 결성에 나섰으며, 새해 행사를 고유성을 발현하는 중요한 계기로 활용했다. 2000년대 후반부터는 박해받은 소수종족으로서 한국 정부에 난민지위를 신청하며 난민성을 표방했다. 그 이후 한국정부가 태국 국경 거주 카렌족 난민을 한국에 재정착시키는 정책은 그 난민성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세 특성들은 각 길목마다 정도를 달리하며 한 데에 어우러지며 재한 카렌족의 길을 수놓았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그 구분의 과정이 역동적이면서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하고자 한다. 초국가성에는 경험과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의 부재가, 고유성에는 일치되지 않은 자기 언어의 한계가, 난민성에는 또 다른 권리 주장자인 한국 정부가 그 길에 끼어들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일단 국내에 거주하는 카렌족 공동체를 다룬 연구가 전혀 없다. 언론 보도도 찾아보기 힘들다. 그만큼 본 연구는 최초의 연구라는 역사성을 갖고 있다. 물론 국내 학자들이 미얀마나 태국 난민촌에 거주하는 카렌족을 다룬 연구가 있긴 하다(김인아 2011, 2012a, 2012b, 2014; 이상국 2010, 2011, 2012; Lee 2001, 2012, 2014; Oh 2003, 2014). 국내 언론도 특히 태국 난민촌에 거주하는

카렌족을 제법 많이 소개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곳을 방문하는 개인과 단체들도 많이 늘어나 한국 사회에서 그들의 존재가 그리 낯설지 않다. 그러나 정작 한국에 거주하는 카렌족들에 대한 이해는 전무한 실정이다.

특정 종족을 다루지 않고 미얀마 이주민을 뭉뚱그려 다룬 연구는 여럿 있다(김선임 2012a, 2012b; 이태정 2011; Kim 2012; Suh 2015). 그마저도 미얀마인을 단독으로 다루기보다 여러 나라 출신 이주민 공동체 비교 연구의 한 사례로 다룬 연구가 주를 이룬다. 이 중에서 김선임(2012a, 2012b)의 연구는 이주 노동자 공동체 형성을 다루어 본 연구와 주제면에서 비슷하다. 그러나 종족 구분 없이 미얀마인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불교를 미얀마인의 대표적인 종교로 간주했기에 기독교도가 다수인 카렌족 공동체를 그 논의에 포함시킬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태정(2011)의 연구 역시 미얀마 이주민 정체성의 변형 과정을 추적하여 살펴봤지만 소수종족의 내적 분화를 살펴 보기에는 한계가 따른다. 한편, 김현미(Kim 2012)와 서지원(Suh 2015)은 국내 거주 미얀마 난민 사례를 다루었다. 김현미는 미얀마 난민의 한국 사회 적응과 초국적 생애 전략을 살폈고, 서지원은 미얀마 난민이 한국 사회에 인권과 난민 의제 신장에 큰 영향을 끼쳤음을 밝힌다. 하지만 이들 역시 카렌족을 구분하여 다루지는 않았다.

미얀마의 소수종족, 특히 카렌족이 따로 주목을 받지 못한 까닭은 선행 연구들이 미얀마 소수종족 문제를 이해하지 못해서였기보다는, 한국은 미얀마 국경지대와 달리 주류종족과 소수종족 사이에 갈등과 충돌이 발생하는 장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에 기존 연구의 한계와 본 연구의 새로움이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종족 간 갈등과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곳, 다시 말해 한국에서 카렌족은 어떻게 자신을 구분하며 정체성을 강화해 나가는가를 밝힌다. 종족 간에 갈등과 충돌이 있는 곳에서 소수종족의 정체성은 두드러지며 주류종

족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는다. 그렇지 않은 현장인 한국에서 카렌족들은 주류종족과 “비슷하되 같지 않은 길”을 걷는다. “비슷하되 같지 않은 길”은 내가 카렌족의 공동체 발전 과정을 개념화하여 생각해낸 표현이다. 이 길은 그 어구에서 이미 드러나듯이 상당히 미묘한 길이다. 이 표현은 호비 바바(2002)를 비롯한 탈식민주의 학자들(로버트 영 2008)이 백인 식민지배자와 토착인 피지배자 사이에 섞이고 스미는 관계, 그렇지만 구분되는 관계를 표현한 영어 구절 “white but not quite”에서 착안한 것이다. 탈식민주의 학자들은 “희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희지 않는 길”이라는 표현을 쓰며 흉내내기를 시도하는 토착인이 끝내 백인처럼 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결국 그 표현에는 비주류의 열등감, 주류의 우월감이 배어 있다. 본 연구는 탈식민주의 학자들에게서 착안하여 “비슷하되 같지 않은 길”을 쓰지만 비주류의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내기보다 그들의 주체성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한다.

주류종족과 소수종족 사이에 갈등과 충돌이 표면적으로 없는 곳, 특히 미얀마의 대도시인 양곤에서 카렌족의 정체성이 어떻게 발현되는가를 밝힌 연구가 물론 여럿 있다. 오윤아(Oh 2003, 2014), 아데스 마웅(Ardeth Maung 2008), 치즈맨(Cheesman 2002)이 이미 이를 다루었다. 이들은 양곤에 거주하는 카렌족이 버마어를 비롯해 주류의 문화를 흡수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 주류와 “완전히 다른” 카렌족 정체성을 표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밝혔다. 미얀마 내부의 환경에서, 함께 어울려 오랫동안 살아온 생활 현장에서 정체성이 그리 뚜렷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초국적 이주의 현장에서, 다시 말해 한국이라는 낯선 곳에서 카렌족 정체성은 전혀 다른 맥락에서 구성되기에 앞선 연구와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본 연구는 미얀마 내부를 다루었던 앞선 연구와 달리 ‘초국가성’을 깊게 품고 있다. 초국주의(Glick Schiller et al. 1992;

Levitt 2001; Vertovec 2004)를 개진하는 학자들은 한결같이 ‘방법론적 일국주의(methodological nationalism)’(Wimmer and Glick Schiller 2002)에서 벗어나 본국과 수용국 사이에 형성되는 초국적 유대 관계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며 본 연구는 주류와 “비슷하되 같지 않은 길”의 초국가적 국면을 들여다 본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초국가적 자극에 관심을 둔다. 거기에는 카렌족 정치 지도자의 방문이나 재한 카렌족 지도자의 태국 국경 난민촌 방문, 해외 카렌족과의 연대 활동 등이 포함된다.

한국의 맥락에서 형성되는 카렌족의 정체성을 살피며 본 연구는 이 초국가적 자극과 더불어 고유성과 난민성도 중요하게 다룬다. 자기 문화의 고유성을 믿고, 지키고, 이어가는 것은 종족정체성 형성과 발전의 기초를 이룬다. 전통적으로 종족성 이론은 이 고유성이 원래 있던 것인지, 만들어진 것인지에 따라 갈렸다. 전자의 견해를 근원론이라 불렀고(Geertz 1963), 후자의 견해를 상황론 또는 도구론이라 불렀다(Gellner 1983; 흄스봄 외 2004). 본 연구는 후자의 견해에 동의하여 카렌족의 전통이 특별한 역사적 계기에 만들어졌다고 보면서, 나아가 기존에 이 견해를 내세운 학자들이 다루지 않았던 부분, 다시 말해 초국적 맥락에서 고유성이 어떻게 발현되는가를 들여다 보려고 한다. 특히 카렌족 고유성을 지키는 핵심 의례인 새해 행사를 자세하게 다루려고 한다.

난민성은 좀 더 직접적으로 한국의 맥락, 특히 정책 환경과 관련을 맺는다. 사실 카렌족을 떠올릴 때 태국 국경지대 난민을 쉽게 연상하지만, 한국내의 카렌족은 그런 이미지로 떠오르지 않았다. 오히려 한국에서는 그동안 카렌족이 아니라 미얀마(버마족) 정치망명가들이 난민 문제의 중심에 서있었다. 한국이 1992년에 유엔난민기구의 협약과 의정서에 가입하고 1994년부터 난민지위 신청을 접수해왔지만, 2000년 3월에 미얀마 정치망명가들이 집단으로 난민지위 신청을 할

때에야 비로소 정부와 시민사회가 난민 문제를 깨닫기 시작했다. 그 이후로 2010년대까지 정부의 정책과 사회적 의제는 미얀마 난민과 깊게 연루되며 입안되고 논의돼왔다. 초기에 카렌족은 이러한 정책과 의제의 중심에 서있지 않았으나 점점 한국의 난민 제도에 의거하여 박해받은 소수종족으로서 자기정체성을 주장해나갔다. 처음에는 미얀마 정치망명가와 ‘비슷한’ 길을 걸으며 난민지위를 획득했으나, 나중에는 그들과 “같지 않은 길”을 선택하며 독립적 난민성을 주장했다. 때마침, 한국정부가 2015년 12월에 난민 재삼국재정착 정책의 시범 사례로 태국 국경지대 카렌족 난민을 데려오면서, 카렌족의 독립적 난민성은 더욱더 굳어졌다. 이제 난민성은 카렌족이 자기 존재를 안팎으로 증명하며 주류와 구분되는 길을 걷는 여정에서 핵심 특성이 되었다.

초국가성, 고유성, 난민성, 이 세 특성은 해를 거듭하며 역동적으로 관련을 맺으며 카렌족의 정체성을 강화해나갔다. 공동체 결성의 첫발을 내딛었을 때는 난민성의 발현이 미약한 채 초국가성과 고유성이 정체성을 형성의 기반이었다면 2000년대 후반 이후에는 난민성이 두드러지며 초국가성과 고유성을 전인하고 카렌족의 자기정체성을 강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더 나아가 카렌족이 세 특성에 의거하며 자기정체성을 세워나가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난관에도 주목한다. 재정착 난민은 거의 전적으로 한국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어 이들을 두고 한국 정부와 ‘소유권’ 경쟁을 벌여야 한다. 특히 재정착 난민이 정부의 적응 프로그램을 거치는 초기 단계에서는 정부의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커서 카렌족 공동체는 이들을 품을 수 없다. 그 이후에도 처음 도입하는 이 정책의 성공에 큰 관심을 두고 있는 정부의 관심과 개입에 대응해야 한다. 카렌족의 난민성은 곧 국가의 통제/관리와 맞서며 가야 하는 길이다. 고유성 역시 만들어진 전통이기에 섞이고 스민



카렌족의 ‘혼종성’과 맞닥뜨려야 한다. 고유성을 내세우는 새해 행사는 주류와 “같지 않은 길”을 확인하는 장이면서도 어쩔 수 없이 주류와 “비슷한 길”을 확인하는 장이기도 하다. 카렌족 공동체는 또한 지금까지 초국적 네트워크를 주도해왔던 중심인물의 부재를 극복해야 한다. 이렇듯 초국가성, 고유성, 난민성을 발판 삼아 걷는 카렌족의 자기 구분의 길에는 그러한 도전이 놓여 있다.

이어지는 장들은 제한 카렌족의 “비슷하되 같지 않은” 길의 여정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각 단계의 공동체 만들기 여정에서 초국가성, 고유성, 난민성이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그리고 최근에 걷는 길에서는 어떤 도전에 부딪히고 있는지 다룬다.

## II. 한국 속으로: 비슷한 길

135개의 종족이 살아가는 미얀마에서 카렌족은 동부 지역과 에야워디(Ayeyarwady) 델타 지역, 양곤 등 미얀마의 남부 지역에 주로 거주하고 있다. 5000천만 명가량의 미얀마 인구에서 주류종족인 버마족(Burman)이 그 중 70%가량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산족(Shan), 카렌족(Karen), 까친족(Kachin), 몬족(Mon), 친족(Chin), 까야족(Kayah), 여카잉족(Rakhine) 등 소수종족이 차지하고 있다. 카렌족의 인구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 미얀마 정부는 300만 명으로 보는 반면, 카렌족 정치 기구인 카렌민족연합(KNU, Karen National Union)은 700만 명으로 추산한다(이상국 2010: 220). 태국에서도, 주로 북서부를 중심으로 카렌족이 거주하며 그 인구는 40만 명가량이라고 한다(Delang 2003: x). 카렌족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른 생활방식과 정체성을 갖고 있다. 에야워디 델타 지역과 양곤에서는 주류종족인 버마족의 언어와 문화에 많이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

는 반면(Oh 2003; Ardeth-Maung 2008), 미얀마 동부 지역에서는 민족주의의 영향을 받아 주류종족과 구분된 자기정체성을 강하게 갖고 있다. 카렌족은 1940년대 후반부터 미얀마 정부에 대하여 분리주의 운동을 벌여오며 한동안 미얀마 동부 지역에 ‘해방구’를 건설하기도 했지만, 1980년대 후반 이후로 정부군이 그곳을 장악하면서 난민이 되어 태국 내 난민촌에서 살아가고 있다. 카렌족 난민의 인구는 15만 명가량 된다(Lee 2014: 462).

카렌족과 한국이 언제, 어떻게 관련을 맺게 됐을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마도 1990년대 중반 한국에 외국인 노동자가 오기 시작했을 때, 카렌족도 그 무리에 끼어 오면서부터 관계를 맺게 되었다고 생각할 듯하다. 그 이전의 관계에 대해서는 들어보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1999년 12월과 2000년 2월에서 4월까지 태국 국경지대 맬라(Mae La) 난민촌에 머물렀던 적이 있는데, 그때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다. 바로 한국인 후손 가족이 내 숙소 옆에 살았던 것이다. 찾아가서 얘기를 들어보니, 이동근이라는 한국인이 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의 징집병으로 버마전선까지 왔다가 일본이 패망한 뒤 그대로 미얀마 동부의 카렌주(Karen State)에 주저앉아 살면서 카렌족 여성과 결혼하여 자녀까지 낳은 것이다. 그 한국인은 1976년 12월 병들어 세상을 떠났고, 남겨진 가족은 그 마을에서 살다가 1991년 무렵 미얀마 정부군이 그 마을을 점령해 들어오자 그의 부인과 자녀 중 일부가 국경을 넘어 맬라 난민촌에 도달했다. 이 얘기에 따르면 한국과 카렌족이 마주하기 시작한 때를 1940년대 중반까지 거슬러 올려도 될 것 같다.

카렌족이 우리의 불행했던 현대사의 한쪽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 아직도 일각에서는 사건의 전모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1987년 11월 29일 대한항공858기가 북한 공작원의 소행으로 폭파돼 추락한 곳이 바로 카렌족 거주지인 태국과 미얀마 접경지

대이다. 당시 신문 보도들을 보면 카렌족이 사고기 잔해를 찾았다고 제보하기도 하고, 카렌족 게릴라들은 추락현장에 대한항공 직원을 안내하는 대가로 20만 달러를 요구했다고도 한다.<sup>4)</sup> 당시는 카렌족 반군 세력이 준국가처럼 접경지대를 점령하고 있던 때라서 한국 정부측이나 대책반이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미얀마정부나 태국정부가 아니라 그 카렌족 반군 세력과 직접 협의를 해나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한국 개신교측이 선교 차원에서 카렌족과 관계를 맺기도 했다. 손승호(2008: 56, 60, 63-64)에 따르면 1976년에 태국에 도착한 김정웅 선교사가 남부태국 미얀마 국경 지역에 카렌족 교회를 세웠다고 한다. 이후 강대홍 선교사는 1989년 12월 23일부터 좀 더 직접적으로 미얀마 카렌족, 그중에서 카렌족 난민과 관련된 활동을 시작했다. 사실 강대홍 선교사의 활동과 소개 덕분에 한국의 개신교도들이 맬라 난민촌을 방문하기 시작했고, 그곳에 신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에 큰 도움을 주었다. 1995년 12월에 태국에 도착한 오영철 선교사는 강대홍 선교사와 함께 맬라 난민촌과 매솟 주변의 카렌족을 지원하는 활동을 했다. 나는 오영철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 1999년 12월에 맬라 난민촌에 들어갈 수 있었다. 1980년대 말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카렌족 난민 이주가 1990년대 중반에 미얀마 정부군이 미얀마 국경 내 KNU의 주요 군사기지를 장악함에 따라 카렌족이 대규모로 국경을 넘어 태국으로 넘어오게 되자 난민촌도 우후죽순 태국 내 국경지역의 도처에서 생겨났다. 이에 따라 엔지오 등 외부 지원 세력이 적극적으로 난민들을 지원했고, 오영철 선교사도 그 지원 대열에 합류했었다. 1990년대 중후반이 되면 이 난민 사태 탓에 카렌족이 한국의 언론과 사회에 제법 많이 알려졌다.

바로 그 무렵, 모사린과 라에노가 1997년과 1998년에 각각 한국에

4) 조선일보(1987/12/01, p.10), 중앙일보(1988/01/05, p.5) 참조할 것.

왔다. 이 두 사람이 입국한 시기는 한국에 외국인 이주민이 산업연수생이나 관광객으로 또는 결혼 이주민으로 들어오는 때와 겹친다. 모사린은 1969년에 에야워디관구(Ayeyarwady Division) 마웅마(Myangma)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의 고향은 같은 에야워디관구의 중심 도시인 바떼인(Bathein)이다. 카렌족의 하위집단중에 모사린은 서부포(West Paw)에 속한다. 개신교도(침례교)가 주류인 스고(Sgaw), 불교도가 주류인 동부포(East Paw)와 달리, 서부포는 개신교도, 불교도, 가톨릭교도가 섞여 있다. 모사린은 가톨릭교도이다. 그의 아버지가 아웅산 수지의 정당인 민주주의민족동맹(NLD,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의 당원으로서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면서 본인도 도망을 다녀야 하는 등 여러 고초를 겪었다. 그러던 중 이렇게 고통스럽게 도망 다니기보다는 차라리 밖으로 나가서 돈도 벌고 가능하면 민주화 운동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다.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도 고려해봤으나 민주화 운동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일본이나 한국에 마음이 더 갔다. 신문과 티브이를 통해 518광주민중화운동 등을 알게 되고 한국에 오면 자유롭게 민주화운동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결국 한국을 선택했다. 2주 동안 체류할 수 있는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왔으나, 비자가 만료된 이후에도 돌아가지 않아서 불법체류자가 되었다. 당시 한국말도 몰랐고, 아는 친구도 없고, 달랑 갖고 있는 것이라고는 마웅마웅소라는 사람의 전화번호였다. 마웅마웅소가 수원의 사출공장에서 일하던, 나중에 독보적인 미얀마 정치활동가가 된 내툰나잉에게로 모사린을 보내주었다. 내툰나잉은 모사린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일자리도 알아봐주었다. 당시 소위 'IMF 경제위기'를 겪던 때라서 내툰나잉의 회사가 문을 닫게 되자 내툰나잉은 이제는 모사린의 회사에 와서 같이 일을 했다. 이 둘은 나이도 비슷하고 정치적 입장도 비슷하여 더욱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 이렇게 친분을 쌓아가던 중 이 둘은

NLD한국지부<sup>5)</sup>를 세울 일을 꾀했다. 마웅마웅소도 이 일에 같이 참여했고, 하나둘씩 사람들이 더 모여들어 28명까지 늘어났다. 이들은 1999년 2월에 NLD한국지부를 설립하고 같은 해 5월 4일에 NLD-LA본부로부터 승인을 받는다. 내툰나잉은 총무를 맡았고, 모사린은 평회원으로 참여했다. 이렇게 모사린은 한국 생활 초기에 버마족 민주화 활동가와 ‘비슷한’ 인생 역정을 거치며 디아스포라 민주화운동에 가담하게 된다. 그 자신 카렌족으로서 내적 정체성은 확고히 갖고 있었으나 주류종족과 “같지 않은 길”을 도모할 조건이 무르익지 않았다.<sup>6)</sup>

1959년 태생인 라에노의 고향은 버고관구(Bago Division)의 따웅우(Taungoo)이다. 그곳은 스고카렌이 많이 살고 그녀 역시 스고에 속하고 기독교도이다. 그곳에서 자동차로 일주 1시간 정도만 가면 카렌주의 탄다웅지(Than Daung Gyi)에 다다를 수 있다. KNU의 근거지와 가까워 그 고향은 미얀마 정부군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다. 정부군은 KNU를 공격하기 위한 기지로서 따웅우를 활용했다. 동네의 남자들은 군대의 짐꾼으로 부역을 바쳐야 했다. 군인들보다 먼저 지뢰밭을 지나가야 했고 이 탓에 다리에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 많았다. 라에노는 따웅우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친 이후 대학을 다니기 위해 양곤으로 가서 양곤대학교 지리학과에 들어갔다. 대학을 졸업 한 뒤에는 카렌주의 정부 학교에서 10년 정도 교사생활을 했다. 이후 다시 양곤으로 가서 양곤교육대학교에 들어갔다. 5년 과

5) 정식영어명칭은 ‘NLD-LA(Liberated Area) Korea Branch’, 우리말로 옮기면 ‘NLD해방구한국지부’가 정확한 표기이지만 편의상 ‘NLD한국지부’라 하겠다. 1991년 2월 14일에 설립된 NLD-LA는 그 본부를 태국의 국경도시인 매솿(Mae Sot)에 두고 있으며, 영국, 일본, 한국, 호주, 미국, 말레이시아, 노르웨이, 독일, 캐나다 등 모두 9개 국가에 지부를 두고 있다. 미얀마 내부 NLD의 정식 해외지부는 아니지만 NLD의 정치 노선을 따르고 있어 사실상의 해외지부로 인정을 받고 있다.

6) 모사린의 개인사에 대한 이야기는 주로 2015년 12월 11일에 그가 운영하는 부평의 음악주점에서 수행한 심층면담에서 들은 것이다.

정의 전문(professional)대학교였지만 라에노는 현장 교사 경력을 인정받아 2년만 다니면 되었다.

라에노가 한국인 남편을 만나게 된 때가 바로 양곤교육대학교를 다니던 시기였다. 당시 해운회사에서 일하던 라에노의 친구가 한국인 선교사와 가깝게 지내던 중에 알게 된 한국인 남성을 라에노와 연결해주었다. 그 선교사 역시 적극적으로 그 둘 사이를 주선했다. 솔직히 라에노는 그 남자를 좋아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갈피를 잡지 못했지만, 교육에만 신경을 쓰는 사이에 나이가 이미 39세에 이르렀고, 인생에서 동반자가 필요하겠다 싶었고, 신뢰하는 선교사가 소개해준 사람이라서 믿고 결혼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1998년 4월 1일, 거짓말처럼 잘 알지도 못하는 한국에 들어왔다. 이때까지도 라에노는 여차하면 미얀마로 돌아갈 생각이었다. 대학교 이상의 교육까지 받은 그녀로서 일이 뜻대로 안 풀릴 경우 직접 대사관에 찾아가서 해결하고 미얀마로 돌아갈 자신이 있었다.

한국에 와서 처음에 남편이 살던 도봉동 아파트에 터전을 마련했다. 아내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는 것을 이미 알았던 남편은 도착하자마자 여기저기 수소문하여 A교회에서 미얀마인들이 모인다는 것을 알아내 그곳으로 안내했다. 김선임(2012a: 114-116)에 따르면, 1994년에 당산동교회에서 불교도인 미얀마인들이 ‘미얀마노동협회(Myanmar Labor Association)’을 조직했다고 한다. 그러나 종교가 달라 그 미얀마인들이 불편을 겪었고 모임의 지도자가 미얀마로 돌아가자 1년 만에 자취를 감추었다고 한다. 비슷한 때에 A교회도 미얀마인들의 모임이 있었다. 1994년 11월 무렵 A교회는 ‘A미션’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외국인 근로자들을 향한 선교활동을 하던 중 어느 한 미얀마인 목사를 만나게 되고 그 미얀마인 목사가 중심이 되어 1995년 1월부터 미얀마인들의 예배를 시작했다.<sup>7)</sup> A교회는 기독교인 미

7) A미션 자료에서 참조 자료의 출처를 밝히면 본명이 드러날 수 있어 부득불 생략한다.

얀마인들의 모임이 최초로 시작된 곳이다. 내가 관여했던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그곳에 대략 50명 정도가 매주 모였고, 목사를 비롯하여 그 모임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미얀마인들은 친(Chin)족이었다. 산족 출신이 1명 있었고, 가끔 불교도 버마족 몇 명이 오기도 했다. 라에노가 이 모임에 왔던 최초의 카렌족이었다. 친족이 이 모임을 주도하다보니 라에노는 신앙은 독실했지만 앞에 나서지 않고 성실히 모임에 오는 정도로만 활동을 이어나갔다. 그녀 역시 모사린처럼 카렌족으로서 정체성은 확실했지만, 아직 조건이 무르익지 않아 친족과 더불어 “비슷한 길”을 걸었다. 모사린이 정치활동 쪽에서였다면, 라에노는 종교활동 쪽에서 그 비슷한 길을 걸었다.<sup>8)</sup>

### Ⅲ. 갈라지는 길목

모사린이 내툰나잉 등과 함께 NLD한국지부를 조직하며 디아스포라 정치활동에 참여해나갔지만 애초에 자신이 난민이라는 의식도 없었고, 한국에 난민지위 인정절차가 있는 것도 몰랐다. 그의 동료인 마웅저(2014: 237-238)에 따르면 미얀마 정치활동가들이 난민을 연상할 때면 아프리카 아이들과 여성들을 떠올렸고 자신들이 난민이라고는 생각도 못해봤다고 한다. 그러나 결정적인 사건이 모사린과 그 동료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았다. 2000년 3월 20일에 NLD한국지부의 국제업무를 담당하던 조샤린(Kyaw Swa Linn)이 불법체류자 단속에 걸려 인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감금되고 곧 미얀마로 추방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본국으로 보내지면 정치활동을 한 조샤린의 운명은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8) 라에노의 개인사는 주로 2015년 12월 13일에 서울의 B교회 근처에서 수행한 심층면담에서 들은 것이다.

등 한국의 민주화단체와 활동가들이 조사린의 추방을 막기 위해 나섰다. 그 방편으로 법무부에 난민지위를 신청했다. 그해 5월 10일 모사린을 비롯해 20명의 회원들 역시 신변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집단적으로 난민지위를 신청했다(마웅저 2014: 236-238; Suh 2015: 764). 그러나 당시 총무인 내툰나잉을 비롯해 오로지 3인만이 2003년에 난민지위를 인정받았고 모사린 등 다른 사람들은 불인정 결정을 받았다.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기나긴 소송전에 돌입하게 된다. 난민신청과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하면서 비로소 그들은 ‘난민성’을 자각했다. 그들의 디아스포라 정치활동은 이제 난민지위 인정 투쟁과 뿔 수 없었다. 그러나 이것은 미얀마인 정치망명가들의 정치적 난민성 자각이었고, 아직까지 박해받은 소수종족으로서 카렌족의 독립적 난민성 자각은 싹트지 않았다.

모사린이 미얀마 활동가와 더불어 디아스포라 정치활동에 본격적으로 가담하면서 카렌족만의 모임을 만들고 싶은 마음도 서서히 커나갔다. 그러나 생각만 있었지 여기저기 흩어진 카렌족을 규합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즈음에 그 길을 걸어가도록 추동하는 사건이 있었다. KNU의 외교업무 담당하고 있던 수장인 데이비드 토(David Taw)가 미얀마 민주화 문제와 카렌족 등 소수민족의 문제를 해외에 알리기 위해 2000년에 한국을 방문했다. 사실 KNU 의장을 비롯해 주요 인사들은 태국정부와 유엔난민기구의 협조를 받아 방콕의 공항을 이용하여 해외 방문을 할 수 있었다. NLD한국지부를 방문한 데이비드 토는 모사린에게 한국에 카렌족은 얼마나 있으며, 어떻게 사는지를 물어보았으나 모사린은 대답을 할 수 없었다. 데이비드 토는 모사린에게 카렌족만의 단체를 만들어보라고 제안했다. 데이비드 토의 방문과 제안에 자극을 받아 이때부터 모사린은 카렌족 단체를 조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

한편, A교회 미얀마인 모임의 구성원들 간 관계가 어려워지자



1999년 10월 라에노를 비롯해 일부 무리가 빠져나가 따로 모임을 만들었다. 그리고 한 이주노동자의 집에서 10명가량이 매주 토요일에 모였다. B교회의 한 교인이 이 사실을 알고 교회측에서 모임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지 알아봐주었다. B교회는 2000년에 공식적으로 교회내에 미얀마인들을 위한 예배 장소를 제공했다.

B교회의 미얀마인 예배에서도 처음에는 역시 친족이 활동을 주도했다. 그러나 라에노가 이때부터 앞장서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며 또 다른 주도자로 떠올랐다. 라에노가 나서다 보니 자연스럽게 카렌족 출신이 점점 늘어났다. 때마침 친족 출신은 가리봉동 쪽에서 자기들만의 모임을 시작하며 B교회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라에노는 미얀마에서 카렌족이 한국에 올 때마다 전화를 해서 이들을 오게 했다. 그리고 엄마처럼 한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보살피주었다. 카렌족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면 라에노에게 연락을 했다. 비행기표 구입하는 문제, 대사관에서 일 처리하는 문제 등 온갖 일을 라에노와 상담했다. 라에노는 미얀마에서 교사를 하면서 이미 그런 일에 익숙해 있었고,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지 않아 카렌족 이주 노동자들을 자기 자식처럼 보살피나갈 시간과 여력이 있었다. 다행히 남편도 자기 일을 이해해주고 많이 도와주어서 큰 힘이 됐다. 라에노의 노력 덕분에 점점 B교회 미얀마어 예배는 카렌족화 되어갔다.

드디어 모사린의 길과 라에노의 길이 마주치게 된다. 2004년부터 이 둘은 빈번히 만나기 시작했다. 마침 새롭게 도입된 고용허가제를 통해 새로운 부류의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오자 카렌족 모임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탄력을 받았다. 4년 전의 데이비드 토의 방문처럼 초국가적 자극을 다시 한 번 받은 것이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온 사람들은 어느 정도 한국에 대해서도 알고 4년 10개월까지 합법적으로 비교적 오래 머무를 수 있었다. 모사린과 라에노는 “카렌족끼리

서로 돕자,” “행사를 만들어 우리 카렌족의 문화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자”며 서로 의기투합했다. 마침내 2005년에 ‘카렌족 공동체 (Karen National Fellowship)’를 시작했다. 회장은 라에노가, 부회장은 모사린이 맡았고, 모임 규모는 25명 정도였다. 첫 모임 장소는 포천의 라에노의 집이었다. 처음에 라에노는 도봉동에 살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양주 덕정으로 옮겼다가, 이제는 포천에 정착하여 살고 있던 터였다. 이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모였고, 회비는 매달 3만원씩 거두었다. 라에노와 모사린은 모임이 있는 전날 밤이면 한두 시간씩 전화통을 붙들고 동료 카렌족들이 이 모임에 나오도록 독려했다. 모임 곳에는 컴퓨터에서 뽑은 카렌국기(national flag)를 붙여 놓고, 모임 때면 카렌국가도 불렀고, 모은 돈은 맬라 난민촌에 보내기도 했다. 점점 카렌족은 독자적인 길, “갈지 않은 길”을 걸어 나갔다.

#### IV. 갈지 않은 길

카렌족 공동체를 시작하며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며 추진한 것은 ‘새해 행사’ 개최였다. 그것은 카렌족의 고유성을 대내외에 알리는 의미를 가졌다. 카렌 달력에 따른 새해 행사는 보통 양력 12월이나 1월 중에 열린다. 미얀마에서 카렌족 새해 기념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1938년에 카렌족 지도자들이 영국 식민당국에 공식적인 날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면서부터 개최되기 시작했다.<sup>9)</sup> 그것은 만들어진 전통으로서 카렌족의 고유성을 주장하는 중요한 행사로 의미를 키워갔다. 나는 카렌족 새해 행사를 매솟에

9) 카렌족은 오늘날 미얀마에 기원전 739년에 들어왔다고 하며 그것을 첫 번째 해로 간주한다. <http://www.burmalibrary.org/reg.burma/archives/199801/msg00225.html> (검색일: 2016.03.22)

서 현지조사를 하고 있을 때인 2005년 1월 10일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대형 카렌국기가 무대 뒤를 장식하고, 모두들 입고 있는 원색의 카렌족 의상이 물결치듯 행사장을 뒤덮고, 하나같이 목청껏 카렌국가를 부르고, 카렌족 정치가들은 신랄하게 미얀마정부를 비판하는 연설을 했다. 이 행사는 그야말로 카렌족의 고유성과 정치의식을 마음껏 표현하는 장이었다. 한국의 카렌족 공동체도 바로 이 행사를 치르면서 카렌족의 고유성을 주장하고 공동체 의식을 키워나가려 했던 것이다. 처음에 새해 행사는 서울의 어느 한 교회를 빌려 개최했다. 그 다음 해에는 라에노가 다니는 B교회에서 개최했다. 이후로는 이동의 편의를 위해 카렌족들이 많이 거주하는 부천과 인천에서 장소를 빌려 개최했다. 이 일에 모사린과 라에노가 계속 깊게 관여했고, 라에노의 남편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

카렌족 공동체는 점점 성장해나가고 있었다. 한편에서는 모사린을 비롯해 젊은 이주민들을 중심으로 미얀마에서 억압받는 카렌족을 한국 사회에 알리고 싶은 마음도 커졌다. 2007년 무렵 그중 몇 사람이 불법 체류자 단속에 걸려 감금이 된다. 모사린과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법률적 보호망을 모색하려고 한다. 7년 전 NLD한국지부 회원들이 단속과 추방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난민지위를 신청했듯이, 이제 그들도 난민지위를 ‘약자의 무기’로 활용하려고 했다. 모사린을 비롯해 12명의 카렌족은 2008년부터 어떤 조직을 만들지 협의해나갔고 2009년 초에 마침내 ‘카렌청년회(KYO, Karen Youth Organization)한국지부’를 창립했다.<sup>10)</sup> 그리고 본부로부터 정식 지부로 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그들은 “박해 받는 소수종족의 권리와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길에 나섰음을 공식

10) 1949년에 미얀마에서 창립된 KYO는 KNU의 중요한 직속 기관으로서 활동해오고 있으며 현재 그 본부를 태국 국경 도시인 매솿에 두고 있다(Lee 2001: 53; McConnachie 2014: 45-46).

적으로 표방하고 NLD한국지부 등 다른 미얀마 민주화활동 단체들과 더불어 주한미얀마대사관 앞에 나가 시위를 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를 난민지위 인정 투쟁의 근거로 삼기도 했다. 여기에 모사린의 경험과 지식이 큰 도움이 되었다. 모사린은 오랜 소송전 끝에 2008년 난민지위를 받았던 터였다. 2000년에 신청했으나 8년이 걸린 것이었다. 모사린은 KYO한국지부 창립 멤버들이 난민지위를 신청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갖추어야 할 서류와 강조해야 할 자기소개 부분과 인터뷰에 응하는 방법 등 자기가 경험한 바를 전수해주었다. 그리고 민변 소속의 한국인 변호사와 연결해주기도 했다. 이렇게 하여 그들 중 3명이 난민지위를 받았다. 거부당한 사람들 중 일부는 행정 소송을 진행했다.

모사린은 난민지위를 받자마자 본격적으로 초국적 활동에 가담했다. 난민지위를 받으면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 받아 해외여행을 할 수 있다.<sup>11)</sup> 공항의 출입국관리 직원조차 이것을 몰라 특별심사장소에 데려가기도 하고, 유효 기간이 짧아<sup>12)</sup> 연장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모사린의 초국적 연대 활동 열망을 가로막지는 못했다. 2009년 모사린은 일본을 방문하여 그곳의 카렌족 단체 행사에 참여했다. 시인이자 음악가인 모사린은 그곳에서 노래를 부르며 연대를 다졌다. 이때 일본 카렌족 단체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해오던 소바라페잉<sup>13)</sup>을 만나서 서로 우의를 다지고 태국-미얀마 국경지대에서 열

11) 난민지위를 받으면 거주비자(F-2)를 받고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이외에도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 교육보장을 받고 사회적응교육도 받을 수 있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난민과 2015).

12) 출입국관리법 제76조5항에서 한동안 유효기간을 1년으로 규정했었으나, 2010년 5월 4일에 개정(11월 15일 시행)한 후부터는 2년으로 늘렸고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난민여행증명서에 관한 조항은 2012년 난민법 제정 이후에도 여전히 출입국관리법 사항으로 남아 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 연혁을 보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이트 참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1991&efYd=20140619#0000>(검색일: 2016.03.23)

13) 나는 2016년 1월에 일본을 방문하여 카렌족 연구를 했는데, 모사린이 소바라페잉

리는 범카렌족 연대 행사인 ‘카렌연합세미나(Karen National Unity Seminar)’에 같이 참여하기로 했다. 카렌연합세미나는 KNU의 중앙 위원회가 국경지대를 비롯해 세계 곳곳에 흩어진 카렌족들을 규합 하기 위해 국경지대에서 1999년에 처음 조직한 행사였으며 1년이나 2년 간격으로 개최돼왔다. 이 세미나는 미얀마의 현 정치상황에 카렌족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도처에 흩어진 카렌족의 유대를 어떻게 발전시켜나가야 하는지를 토의하는 자리이다.<sup>14)</sup> 소바라페잉은 모사린보다 앞서 일본 정부로부터 2006년 1월에 난민지위를 받은 이후 난민여행증명서를 갖고 태국-미얀마 국경지대를 방문하며 카렌연합세미나에 참여해오던 터였다. 2010년 모사린은 드디어 KYO 한국지부의 대표로서 태국 방콕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태국-미얀마 국경지대에서 열리는 카렌연합세미나에 참여했다. 모사린은 거기에서 다시 소바라페잉을 만나고 호주 등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는 카렌족 지도자들도 만나 카렌족의 상황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다. 물론 국경지대의 카렌족 정치 지도자와도 많은 얘기를 나누며 현재의 정치상황에 대한 이해도 높였다. 모사린을 비롯해 참석자들은 카렌연합세미나가 끝난 후에는 방콕으로 내려와 리포터클럽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그 세미나의 성과를 비롯해 미얀마의 정치 상황과 카렌족의 견해를 알리기도 했다.

모사린이 이렇게 KYO의 지도자로서 카렌족을 위한 활동을 주로 해나가자 NLD한국지부 활동은 자연스레 소홀해졌다. 몸은 하나인데 두 조직에 똑같이 열심을 내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더군다나 주말에만 시간을 내서 참여해오던 터였다. 시인으로서, 음악인으로서, HIV환자를 돕는 독지가로서 활동도 하고 있어서 더욱더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다. 더군다나 NLD한국지부는 밤 11시까지도 회

---

을 소개해주었다.

14) <http://www.knuhq.org/karen-unity/karen-national-unity-seminar/> (검색일: 2016.03.02)

의를 했고, 매달 2번씩 대사관에 나가야 하기도 했다. 당시 화성에서 살던 때라서 이동 시간도 만만치 않았다. 시간을 줄이라고 여러 번 요구를 했으나 관철 되지 않았다. NLD한국지부로서는 카렌족 모임에만 열심을 내고 자기네에는 소홀히 하는 모사린에 대해 눈치를 주었다. 모사린의 서운한 감정도 커졌다. 1988년 당시 카렌족이 국경으로 도망친 버마족 학생과 민주화운동가들을 품어주었고, 현재 난민촌에서도 카렌족이 이들을 품어주는데 왜 카렌족을 이해하지 못하는가 하는 섭섭한 마음이 생겼다. 마침내 모사린은 2010년에 NLD한국지부를 탈퇴하고 KYO한국지부의 일에만 관여했다.

그 무렵 한국 정부는 좀 더 발전적인 난민 정책을 모색했다. 그간 난민 관련 조항은 출입국관리법에 들어가 있었으나 이제 별도의 난민법을 제정하려 했고 그 참에 제삼국재정착 정책도 도입하려고 했다. 2000년에 NLD한국지부 회원들의 단체 난민지위 신청으로 촉발된 난민 문제가 해를 거듭하며 한국 시민사회의 관심을 받았고 인권 국가를 대내외에 표방하려는 정부의 관심도 받았다. 마침내 2012년 2월 10일에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별도의 난민법이 제정됐다(Wolman 2013; Soh and Lund 2014). 정부는 재정착난민을 수용하기 위해 영종도에 ‘난민지원센터’를 2011년 착공하여 2013년에 완공했다.<sup>15)</sup> 그리고 시범(pilot)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디에서, 어떤 난민을, 어떤 규모로 데려올지 관련 단체와 논의했다.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측은 위급한 난민을 우선순위로 여겼으나 법무부측은 한국 사회에 통합되기 쉬운 난민을 우선순위로 여겼다.<sup>16)</sup> 마침 일본 정부가 2010년부터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매솟 주변의 난민촌에 거주하는 카렌족을 매년 30명 규모로 데려왔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정책

15) 지역주민이 혐오시설이라 여겨 반대를 하자, 당초의 난민지원센터라는 이름이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로 바뀌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9012228515&code=950201](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9012228515&code=950201) 참조. (검색일: 2016.03.23)

16)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채현영 법무담당관과 대화(2015년 10월 20일).

을 그대로 본받아 그 난민촌에서, 그 사람들을, 그 규모로 데려오기로 했다. 더군다나 한국에 이미 카렌족 공동체가 자리 잡고 있어서 재정착 난민들이 한국 사회에 비교적 쉽게 통합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유엔난민기구 태국사무소와 난민자치조직의 도움을 받아 지원 접수를 받은 후, 한국의 재정착 제도 담당관들은 직접 국경지대 난민촌으로 가서 지원자들을 면담하고 선발했다. 한국에서는 이들의 정착을 도울 수 있는 카렌족을 찾아 나섰다. 그러던 중 라에노를 알게 되고 라에노가 다니는 B교회와 포천의 라에노 집까지 방문하여 그 일을 해 줄 것을 부탁했다. 구체적으로 재정착난민이 영종도의 ‘난민 지원센터’에서 6개월 동안 살 동안 통역 업무를 해주고 세탁기 사용법이나 샤워 방법 등을 알려주는 등 전반적인 생활 안내자의 역할을 해주는 일이었다. 포천에서 영종도까지 날마다 출퇴근하는 것이 만만치 않을 일이었으나 라에노는 자기 동족을 돕는 일인 만큼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여 흔쾌히 동의했고, 마침 남편도 라에노의 결정을 존중해주었다. 라에노 말고도 몇 명이 그러한 일을 하게 될 것이나, 라에노가 그들과 견줘 카렌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여 난민들의 사정을 이해하고 한국 정부 측에 이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 터였다.

카렌족 난민이 온다는 사실은 이미 한국의 카렌족 공동체에 널리 퍼져나갔다. 카렌족 공동체는 공항에 어떻게 마중을 나갈까, 꽃다발을 전해줄까, 어떤 선물을 전해줄까 얘기를 나누며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지만 자기들이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겪은 온갖 어려움을 생각하면 과연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었다. 몇몇 기존 난민 인정자들은 자기네들에게는 별 도움도 주지 않으면서 재정착난민을 특별 대우하는 한국 정부의 ‘생색내기’ 태도에 불만을 품기도 했지만, 이들을 따뜻하게 품고자 하는 마음은 진심이었다.

## V. 초국적 길

해외 카렌족 공동체의 지도자들도 범카렌족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의 카렌족을 초국적 연대 활동에 더 깊이 끌어들이려고 했다. 범카렌족 네트워크는 KNU를 정신적·물질적으로 후원하는 주요한 자원이 돼왔던 터였다. 마침 카렌족 난민이 재정착된다고 하니 그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보았다. 호주의 카렌족 공동체 모임과 해외 카렌족 연합 활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오던 가네미 쿠누(Ganemy Kunoo)가 그 일을 추진했다. 가네미는 2015년 10월 7일부터 21일까지 한국을, 바로 이어 11월 5일까지 일본을 방문하려고 했다. 그에 앞서 9월 30일 모사린과 일본의 카렌족 몇 명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sup>17)</sup>

한국과 일본의 토메파<sup>18)</sup> 가족을 방문하며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 한국과 일본 방문 일정을 보냅니다.

...

KNU 본부는 나에게 계속 한국과 일본에 가서 그곳에 사는 우리 카렌 가족들을 만나보라고 부탁해왔습니다.

그러나 다른 급한 사정 때문에 인도와 안다만 섬, 이스라엘에 먼저 가서 그곳의 우리 카렌족을 만나야 했습니다.

마침내 내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곧 출발할 것입니다. 2015년 10월 7일에 멜버른을 떠나 한국과 일본으로 향합니다.

여기 요청한대로 내 일정과 이력서를 첨부합니다.

평안을 빕니다.

17) 이 편지는 KYO 회장인 묘페잉에게서 전달받았다.

18) 토메파는 우리의 단군처럼 카렌족의 시조이다. 우리가 단군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카렌족도 토메파의 자손/가족이라는 표현을 곧잘 쓴다.



## 가네미

이 편지 내용을 보면 KNU 본부 차원에서 해외 거주 카렌족들을 엮는 활동, 특히 한국과 일본에 관심을 크게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역할을 맡은 가네미 쿠누는 1977년에 KNU 혁명에 가담하여 사단장으로서 전투에 참여하기도 하고, 맬라 난민촌의 건립에도 크게 관여하고, KNU 의장의 비서와 보좌관 역할 등을 역임하다가 1994년 호주에 재정착한 인물이었다. 그 후 호주 카렌족 공동체 조직에 크게 관여하며 회장도 맡았고, 태국-미얀마 국경지대를 자주 방문하며 KNU와 해외 카렌족 연대 발전 방안을 협의해왔다. 마침내 2014년 9월 20일에 범해외카렌족연합조직체인 ‘국제카렌회 (IKO, International Karen Organization)’를 조직했다. IKO는 그 아래 아시아태평양지부, 유럽지부, 북미지부를 두었다.<sup>19)</sup> 그 자신 IKO초대 회장을 맡아서 편지에 언급된 것처럼 카렌족이 거주하는 해외 이곳저곳을 방문해왔다.

가네미가 한국에 도착할 무렵 모사린은 나에게 전화를 걸어 가네미가 매우 중요한 인물이니 꼭 만나보라고 제안했다. 모사린에게는, 아니 카렌족 공동체에게는 가네미의 방문은 15년 전 데이비드 토의 재현이었던 셈이다. 가네미가 부평의 KYO 모임터에서 묵고 있는데 마침 그 주 일요일(10월 11일)에 KYO 회원들과 모임도 갖고 그 뒤에는 부천의 NLD한국지부도 방문할 예정이라고 했다. 10월 11일 KYO의 모임터인 부평역 근처의 단독주택에 갔다. 30명가량의 카렌족이 전통의상을 입고 옹기종기 모여서 가네미가 방에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윽고 역시 전통 의상을 입은 가네미가 나와 그 무리 앞에서 연설을 했다. 그 연설에서 카렌족이 한동안 고유의 왕국

19) IKO에 대한 추가 설명은 다음 사이트 참조할 것. <http://dreamzvalley.blogspot.kr/>  
(검색일: 2016.03.02)

을 유지했다는 것, 버마족 왕들이 카렌족을 학대했다는 것, 2차 대전 시기에 버마족이 카렌족을 잔혹하게 학살했다는 것, 버마족 중심의 역사교과서가 카렌족의 고유성을 배제했다는 것, 미얀마의 현재 민주화는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위주로 얘기했다. 그리고 말미에 IKO를 설명하고 한국의 카렌족도 IKO한국지부를 세워 그 아래로 들어올 것을 당부했다. 이 연설을 마치고 가네미는 부천역 근처의 NLD 사무실에 갔다. 한 달여 전(9월 4일)에 타계한 내툰나잉 회장을 대신 하여, 이제 안나인툰 부회장이 가네미를 맞이했다. 그날 모인 12명의 회원들 앞에서 가네미는 바로 직전과는 다른 어조로 1988년 미얀마 군부가 민주화운동을 탄압할 당시에 버마족 학생 활동가들과 NLD 회원들이 국경으로 피난 왔을 때 KNU가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어떻게 서로 연합활동을 했는지를 위주로 연설을 했다.

10월 18일 일요일에 가네미는 몇몇 KYO회원들의 인도를 받아 서울의 B교회를 찾아왔다. B교회의 라에노 등 카렌족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예배 도중의 소개 시간에 가네미는 간략하게 자기의 이력과 한국 방문 목적을 소개했다. 예배가 끝나자 재미있는 광경이 벌어졌다. 갑자기 카렌족과 비카렌족이 분리됐다. 라에노가 나에게 다가와 카렌족은 따로 모이니 같이 나가자고 살며시 얘기했다. 사실 B교회는 카렌족이 주류이기는 하지만 담당 목사는 버마족이고, 새신자 중에도 버마족이 있고, 몇몇은 까친족이고, 일부 카렌족은 카렌족이라는 정체성이 희박한 사람도 있었다. 그들은 교회에 남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라에노의 안내를 받아 조용히 하나둘씩 빠져나가 라에노가 미리 예약해 놓은 근처 중국식당에 모여들었다. 20명가량이 빙 둘러 앉았다. 한가운데는 가네미와 라에노가 앉았다. 이윽고 가네미의 연설이 시작됐다. 가네미는 해외 나와서 살고 있지만 카렌족으로서 정체성을 확고하게 지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먼저 했다. 이어 버마족이 카렌족의 자산을 어떻게 탈취해갔는지 설명하며 그

한 예로 쌀 소출이 많은 에야위디 델타 지역이 원래 카렌족의 땅이었는데 미얀마 정부가 버마족을 그곳으로 데려오며 카렌족을 쫓아냈다는 것을 들었다. 미얀마의 국부로 추앙받는 아웅산 장군도 비판했다. 카렌 설날을 정할 때 아웅산 장군이 반대를 했다는 것이다. 가네미는 이어서 해외에서 살 때 카렌족 공동체가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자기가 관여한 호주 카렌족 공동체를 모범 사례로 들며 설명했다. 끝으로 한국의 카렌족 공동체가 IKO의 지부로 들어와 초국적 연대 활동에 함께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틀 뒤(10월 20일), 가네미와 새로 KYO회장직을 맡은 묘뎬잉, 그리고 나 이렇게 셋은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를 방문했다. 가네미는 10월 11일 부평에서 만났을 때 이미 나에게 한국의 난민 관련 책임 기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주선을 부탁했던 터였다. 법무부 난민과는 여러 사정 탓에 방문이 어려웠고, 나는 대신 그 대표부를 주선했다. 가네미와 그 대표부의 주요 인사는 12월 23일에 들어오게 될 재정착 카렌족에 대한 얘기를 주로 나누었다. 가네미는 호주의 재정착 카렌족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호주 사회에 적응했는지 예를 들며 기존 공동체의 역할이 새로 올 난민의 정착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카렌족은 버마족과 다르다는 점을 힘주어 말하며 특히나 재정착된 난민들은 버마족에게서 고통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버마족을 신뢰하지 않으니 이들 곁에서 생활을 안내하고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통역인은 반드시 카렌족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 점을 한국 정부에게도 꼭 전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 다음날 가네미는 일본으로 떠났다. 가네미가 한국의 카렌족 공동체에 준 초국적 자극은 매우 컸다. 가네미가 떠난 뒤 한국의 카렌족은 가네미의 요청과 당부를 받아들여 조직을 새롭게 구성했다. 드디어 2015년 말에 기존의 ‘카렌족 공동체(Karen National Fellowship)’를 해체하고 새로이 ‘한국카렌회(KKO, Korea Karen

Organization)’를 구성하여 IKO 아래로 들어갔다. 초대 회장은 라에노가 맡았고, 그 아래 부회장, 총무, 부총무, 회계, 청년국, 여성국, 문화국, 자문단, 모금위원회, 언론위원회 등을 두었다. 이로써 한국 카렌족의 주류종족과 “갈지 않은 길”은 해외 카렌족과 “같이 걷는 길”로 접어들었다.

## VI. 울퉁불퉁한 길

2015년 12월 23일, 인천공항 도착장 맞이 구역에서 라에노는 나와 잠깐 인사를 나눈 뒤 법무부 재정착 담당관과 더불어 재정착 난민 무리를 인솔하여 미리 대기한 버스에 올랐다. 그 버스는 곧바로 근처의 ‘난민지원센터’를 향해 출발했다. 집에서 나올 때는 어두웠으나, 집으로 돌아갈 때는 햇살이 환하게 비쳤다. 어둡게 시작했는지 몰라도, 재정착 난민의 한국 삶에 환한 빛 비추길 진심으로 바라며 돌아왔다. 오늘 재정착 난민들을 스치듯 만나 아쉬웠지만, 얼마 있지 않아 이들을 뜨겁게 만나게 될 것이다. 바로 2016년 1월 10일 카렌 새해 행사에 이들이 올 예정이기 때문이다. 라에노도, 모사린도, 묘떼잉도 나에게 여러 번 그렇게 말했었다. 진짜 ‘선물’처럼 이들이 그 현장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이다.

2016년 1월 10일 아침, 부푼 마음으로 카렌 새해 행사가 열리는 인천상공회의소(인천 남동구 소재)로 갔다. 도착하니 아직 행사가 시작하지 않았다. 입구에는 초대 KNU 의장인 소바우지를 비롯해 혁명을 이끌었던 카렌족 정치 지도자들의 초상사진이 도열돼 있다. 행사장 주위를 둘러보며 혹시나 재정착 난민들이 도착했나 살펴보았다. 라에노가 단상에서 행사 준비를 하다가 나를 보고는 이쪽으로 다가와 인사한다. 나는 바로 재정착 난민이 언제 올 것인지 물어보았다.

“못 올 거예요,” 라에노가 대답했다. 가슴에 턱 내려앉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 채 라에노에게 그 사정을 물어보았다. “난민지원센터에서 재정착 난민들이 여기에 참석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라에노의 목소리에는 아쉬움과 불만이 잔뜩 묻어 있었다. 라에노는 말을 이었다.

나는 여러 번 담당관에게 이 행사가 카렌족에게 매우 중요하니 참석을 허락해달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재정착 난민 아이들도 여기 온다며 잔뜩 기대를 하고 노래와 춤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허사가 됐어요. 나 뿐만 아니라, KYO 차원에서든 공문도 보내며 요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조금 있다 KYO 회장인 묘페잉도 나에게 다가와 인사를 하며 그 얘기부터 했다. “새해 행사가 정말 중요하다며 공문도 보내며 요청을 했는데, 결국에 허락을 못 받았어요.”

한국 정부로서는 재정착 난민을 당분간 외부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며 천천히 노출을 시키자는 태도를 견지했던 것 같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한국의 설날이나 추석 명절 행사에 가족을 못 가게 한 것이나 다름없어서 카렌족 공동체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 재정착 난민의 한국 도착이 기존 카렌족 공동체에 생기를 불어넣고 “같지 않은 길”을 가도록 더욱더 부추기는 사건이었으나 아직 그들 품속에 들어온 선물이 아니었다. 전적으로 한국 정부의 ‘은혜’를 입은 재정착 난민으로서 한국 정부의 말을 더 들을 수밖에 없고, 기존 카렌족 공동체도 재정착 난민의 특수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재정착 난민은 아직은 ‘유예된 선물’로서, 6개월간의 난민지원센터 적응 교육이 끝나야 기존 카렌족 공동체가 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이 끝나도 한국 정부가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볼 예정이라

때때로 한국 정부와 재정착 난민을 둘러싸고 ‘소유권’ 경쟁을 하며 “쉽지 않은 길”을 가야 한다.

재정착 난민이 오지 못했지만 카렌족 새해 행사는 성대히 진행됐다. 카렌족 공동체는 이를 바라보며 1년을 살아온다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자기의 고유성을 드러내는 핵심 전통이기 때문이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인원은 200-250명 되어 보였다. 미얀 공동체 의장, NLD한국지부 부회장, 미얀마센터 회장, 몬족 공동체 회장 등 미얀마인들을 비롯하여 인천외국인력지원센터장 등 한국인들도 초청 받아 참석했다. 단상 벽면에는 대형 카렌국기가 걸려 있고, 그것을 바탕 삼아 ‘2755년 카렌 새해 행사’ 글귀가 영어로, 그리고 스고카렌어, 서부포카렌어, 동부포카렌어로 각각 쓰여 있다. 11년 전(2005년 1월 10일) 매솟에서 같은 행사에 참석할 때도 재미있으면 서도 의아해한 것이지만, 여전히 이 행사에서도 모든 순서를 버마어로 진행했다. 카렌 새해 행사를 세 하위카렌족 언어로 표기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카렌족의 언어 현실을 알려준다. 스고카렌족이 KNU를 비롯해 많은 카렌족 단체에서 주도하고 있지만, 그 언어가 카렌족 모두를 아우르는 공용어가 되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동부포카렌족과 서부포카렌족은 버마족과 가까워서 어울려 살다 보니 많이들 동화되어 불교도도 많고 버마어를 더 편하게 사용한다. 내 옆에 앉은 카렌족에게 내가 인사를 한다며 간단한 스고카렌어를 말했더니 그 언어는 잘 못한다며 버마어로 답한다. 이 행사에서 카렌족은 자기의 역사를 소개하는 동영상 순서의 앞부분에서 상영했다. 그 동영상은 카렌족이 오늘말 미얀마 땅에 맨 처음 들어온 민족이며, 과거 버마족으로부터 혹독한 고난을 당했으며, 특히 2차 대전 시기의 잔혹상은 잊을 수 없으며, 1940년대 말부터 전개하고 있는 카렌족의 투쟁은 정당하고 빛난다며 고유성을 고취했지만, 그 고유성의 근본적인 기초인 통일된 언어를 버마어에 빚지고 있는 셈이다. 사실 초국적

자극을 주었던 가네미도 앞서 소개한 부평의 KYO 모임터에서도, B 교회의 예배 후에 모인 중국식당에서도 버마어로 연설을 했다. “같지 않은 길”은 언어 탓에 여전히 “쉽지 않은 길”이다.

한편, 모사린은 인천공항에서도 못 봤는데, 이번 행사에서도 보지 못했다. 카렌족 공동체 형성에 큰 역할을 했던 모사린이 이제는 쉬고 당분간 제 시간을 갖고 싶어 하는 것 같다. 한 달 전에 이미 그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 1997년 한국에 도착한 뒤 NLD 활동하고, 한국 카렌족 공동체 조직하고, KYO 조직하고, 태국 국경에 방문하고, 초국적 연대 활동에 참여하는 등 쉴 새 없이 달려왔다. 몸도 마음도 지쳤고, 이제는 자기가 2010년부터 해오는 사업인 미얀마 음악주점에 집중하고 싶어 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된 IKO한국지부의 임원단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는 역할은 여전히 하고 있지만 앞에 나서지는 않고 있다. 누구보다도 초국적 활동을 많이 해온 모사린의 경험과 지도력이 필요한 IKO한국지부의 입장에서는 그의 부재가 무척 아쉽게 됐다. 일본과 태국 국경과 호주의 카렌족을 한국의 카렌족과 엮어 활기차게 초국적 연대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모사린인데 말이다. 그가 없이 라에노를 필두로 하여 걷는 한국의 카렌족 공동체의 초국적 연대의 길은 쉽지 않은 길이다.

## VII. 결론

지금까지 한국의 카렌족이 1990년대 중반부터 현재(2016년 초)에 이르기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라에노와 모사린의 얘기를 중심에 두고 살펴보았다. 이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한 시기는 미얀마인을 비롯하여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와 겹친다.

모사린과 라에노는 처음에 다른 미얀마인들과 같이 어울려 지내며 “비슷한 길”을 갔다. 모사린은 버마족 정치 활동가들과, 라에노는 친족 기독교인과 더불어 그 길을 갔다. 카렌족으로서 의식은 있었지만 자체적인 공동체를 조직할 환경이 무르익지 않았다. 이들의 이주는 초국가성을 띠었지만, 공동체 만들기의 자원인 초국가적 연대를 발전시키기에 이르지 못했고, 고유성을 발현할 계기도 찾지 못했으며, 난민성도 자각하지 못했다. 모사린과 라에노의 길도 아직 마주치지 않았던 때였다.

2000년대에 접어들며 카렌족 공동체는 갈라지는 길목에 들어섰다. 여기에 KNU의 핵심인사의 한국 방문이라는 초국적 자극이 큰 영향을 끼쳤다. 모사린은 2000년에 다른 NLD한국지부 회원들과 함께 난민지위 신청을 하면서 카렌족 중에서는 최초로 난민성을 자각한 사람이 되었다. 라에노는 새로운 교회에서 주도적인 사람이 되고 친족은 그들 나름대로 자기 길을 걸어가며 분리되기 시작한다. 드디어 모사린의 길과 라에노의 길이 마주쳐 그 둘은 공동체를 결성하려는 길을 함께 내딛기 시작한다. 마침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카렌족과 더불어 그 둘은 2005년에 마침내 카렌족 공동체(Karen National Fellowship)를 결성하고 고유성을 발현하는 새해 행사를 기획하기에 이른다. 이렇듯 2000년대 중반이 되면 ‘초국가성,’ ‘난민성,’ ‘고유성’에 바탕을 둔 공동체 만들기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초국가성은 아직 쌍방향적 연대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고, 난민성은 아직 소수종족의 고난이 아닌 민주주의 수난에 바탕을 두었고, 고유성을 발현하는 장은 그 규모가 아직 크지 않았다.

2007년부터 카렌족 공동체 만들기는 정치색을 띠었다. 그 무렵 몇몇 공동체 구성원들이 불법 체류자 단속에 걸리면서부터 법률적 보호망을 구축하려는 시도를 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2009년 초에 카렌청년회(KYO)한국지부를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이들은 이



제 박해받은 소수민족으로서 독자적인 난민성을 표방하며 한국 정부의 난민 신청 제도를 약자의 무기로 활용했다. 카렌족의 초국가적 연대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난민지위 인정을 받은 모사린은 KYO한국지부의 대표로서 태국-미얀마 국경지대 등을 방문하며 KNU 본부를 비롯하여 일본, 호주 등 해외 각처의 카렌족과 초국적 연대를 증진하는 활동에 참여했다. 그리고 그가 몸담았던 NLD한국지부에서도 2010년 탈퇴하면서 더욱더 독자적인 길을 걸어 나갔다.

2010년 이후의 한국의 난민 제도의 변화, 특히 2012년 난민법 제정으로 본격화된 난민 제삼국재정착 정책은 카렌족 공동체의 난민성과 초국가성을 강화하는 계기였다. 이제 재정착 난민들은 제한 카렌족 공동체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일으킬 새로운 자극이자 자원이었다. 안팎으로 난민성은 카렌족 공동체의 핵심 성격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또한 재정착 난민의 도착은 해외 카렌족 연대 활동에도 새로운 기운을 불어일으켰다. IKO 회장의 2015년 10월 한국 방문은 한국의 카렌족이 해외 카렌족과 더불어 초국적 연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자극하는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이 방문을 계기로 기존의 카렌족 공동체는 IKO한국지부로 재구성되어 해외 카렌족과 같이 걷는 길을 본격적으로 나섰다. 그리고 독자적 정체성은 카렌족의 고유 행사인 카렌 새해 행사에서 극적으로 표출됐다.

이렇듯 해를 거듭하며 초국가성, 고유성, 난민성, 이 세 특성은 서로 역동적으로 엮이며 카렌족의 독자적 정체성을 구축해왔다. 글을 쓰는 이 시점에서 그 세 특성 중에 난민성이 강력하게 발현되며 초국가성과 고유성을 견인하고 카렌족의 자기정체성을 강화하고 있다. 물론 카렌족의 이러한 자기정체성 구성이 카렌족만의 독특한 것만은 아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방글라데시 치타공 산악지대 소수종족인 줌머족 역시 이러한 세 특성에 바탕을 두고 자기정체성을 확립했

다(오경석 2011; 재한줌머인연대 2012; 차크마 나니로넬 2014). 박해를 받는 소수종족이 초국적 이주를 단행하여 수용국에서 공동체를 구성할 때 이러한 특징을 떨 수 있다. 카렌족이 그러한 사례에 해당하면서도 다른 점은 한국의 난민 정책 환경, 특히 난민 재정착 제도가 직접적으로 카렌족과 관련을 맺으면서 카렌족의 난민성을 더욱 더 강화했고, 카렌족이 국가와 대면하는 장을 조성했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재한 카렌족 공동체는 다른 소수종족 공동체와 견줘 더 역동적인 길을 걷는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역동적인 길에서 카렌족은 그간 초국적 연대 활동에 큰 역할을 했던 모사린의 부재를 겪어야 하고, 고유성을 강조하는 새해 행사에서는 미얀마인과 비슷함을 확인하는 역설적인 상황과 마주해야 하고, 재정착 난민의 ‘소유권’을 두고는 한국 정부와 통제/관리와 맞서야 한다.

양곤 등 미얀마 내부에서도 그랬듯이, 한국에서도 카렌족은 버마족 등 미얀마인과 언어·문화·종교에서 완전하게 분리되지 않은 채 비슷한 일상을 살아간다. 그 한계 속에서도 그들은 공동체를 만들어 주류종족과 “같지 않은 길”을 추구해왔다. 그만큼 “비슷하되 같지 않은 길”은 어렵지만 주체적인 길이다. 탈식민주의 학자들(바바 2002; 영 2008)이 주장하는, 주류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또 다시 예속으로 빠지는 피지배자의 “희되 완전히 희진 않은 길”과 같은 체념적인 길이 아니다. 그 주체적인 길을 걷는 여정에서 그들은 초국가적 연대를 자원으로 삼았고, 한국의 난민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며, 자신들의 고유성을 드러내는 행사를 대대적으로 조직했다. 그들의 공동체는 이제 초국가적 사회공간(Faist 1990)이 되었으며 기존의 ‘방법론적 일국주의’(Wimmer and Click Schiller 2002)를 넘어서 초국적 시야를 가져야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카렌족의 초국적 길은 국가 권력의 개입과 카렌족 내부의 혼종성과 맞서며 걷는 길이라는 점에서 그 초국주의가 간과할 수 있는 ‘내셔널’ 차원의 정치와 ‘로컬’

차원의 혼종성을 환기하고, 세 차원(트랜스내셔널, 내셔널, 로컬)의 교차성과 그 사이의 경합성에 주목해야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제기한다. 결국 라에노가, 모사린이, 카렌족이 걷는 “비슷하되 같지 않은 길”은 “내를 건너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sup>20)</sup> 가듯이 그 여정마다 낯선 정치 지형과 맞서 헤쳐 나가는 새롭고도, 어렵고도, 주체적인 길이다.

### 〈참고문헌〉

- 김선임. 2012a. “이주노동자공동체 형성에서 민족 정체성과 종교 정체성의 경합: 미얀마, 방글라데시, 필리핀 사례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선임. 2012b. “이주노동자공동체 형성과정에서 다문화 실태와 불교적 대안-미얀마, 방글라데시, 필리핀 사례를 중심으로.” 『동아시아불교문화』 10: 49-85.
- 김인아. 2011. “미얀마 껀잉(Kayin)족 정체성의 형성과 변화.”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인아. 2012a. “미얀마 껀잉족(Kayin)의 종족성 변화와 그 현대적 의미.” 『동남아시아연구』 22(1): 37-85.
- 김인아. 2012b. “미얀마 식민시대 이전의 껀잉족 기록에 관한 역사적 고찰.” 『아시아연구』 15(1): 143-173.
- 김인아. 2014. “영국 식민 진출 이후 미얀마 껀잉 사회의 형성과 변화.” 『아시아연구』 17(2): 31-56.

---

20) 윤동주의 시 ‘새로운 길’에서 딴 구절이다. 본고를 쓸 무렵 ‘동주’라는 영화가 상영됐다. 그 영화에서 윤동주가 고향 간도를 떠나 연희전문(연세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경성행 기차를 타고 가던 중에 ‘새로운 길’을 쓰는 장면이 나온다. 그때부터 시작되는 윤동주의 초국적 여정이 나에게서 한국 카렌족의 여정과 오버랩 된다.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난민과. 2015. 『난민인정자, 인도적 체류자, 난민신청자를 위한 난민인정절차 가이드북』.
- 마웅저. 2014. “마웅저씨의 한국에서의 20년(대담자: 양영미, 쓰지모 토 도시코).” 『아시아저널』 8: 221-263.
- 바바, 호비. 나병철 역. 2002. 『문화의 위치: 탈식민주의 문화이론』. 서울: 소명출판.
- 손승호. 2008. “한국교회 태국선교의 역사.” 『한국기독교와 역사』 28: 45-88.
- 영, 로버트. 2008. 김용규 역. 『백색신화: 서양이론과 유럽중심주의 비판』. 부산: 경성대학교출판부.
- 이상국. 2010. “백인 구원자와 카렌족: 현실이 된 카렌족 신화.” 『한국문화인류학』 43(1): 217-261.
- 이상국. 2011. “지구시민사회의 성과와 한계 태국-미얀마: 국경지역 난민 구호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아시아연구』 14(1): 119-154.
- 이상국. 2012. “태국 거주 미얀마 카렌족 난민의 생계추구 양상에 관한 연구: 국가, 국제구호기구, 지역사회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연구』 22(2): 207-234.
- 이태정. 2011. “한국 이주노동자의 이주과정과 변형 아이덴티티.”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오경석. 2011. “제한쥬머인연대(Jumma People's Network in Korea)와 미디어의 재현.” 『다문화사회연구』 4(2): 71-101.
- 제한쥬머인연대. 2012. 『쥬머 민족의 억눌린 목소리』. 김포: 제한쥬머인연대.
- 조선일보. 1987. “태-버마접경에 추락 흔적.” 12월 2일.
- 중앙일보. 1988. “KAL 사고기 잔해 카렌족서 발견 주장.” 1월 5일.
- 차크마 라니로넬. 2014. 『방글라데시 치타공 산악지대: 쥬머족의 모

- 국, 그리고 그 삶과 문화』. 서울: 테이크아웃드로잉.
- 홉스봄, 에릭 외. 2004. 박지향·장문석 역. 『만들어진 전통』. 서울: 휴머니스트.
- Ardeth Maung Thawngmung. 2008. *The Karen Revolution in Burma: Diverse Voices, Uncertain Ends*. Washington, D.C.: East-West Center.
- Cheesman, Nick. 2002. "Seeing 'Karen' in the Union of Myanmar." *Asian Ethnicity* 3(2): 199-220.
- Delang, Caludio O. (ed.). 2003. *Living at the Edge of Thai Society: The Karen in the Highlands of Northern Thailand*.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Curzon.
- Geertz, Clifford. 1963. *Old Societies and New States: The Quest for Modernity in Asia and Africa*. New York: Free Press.
- Gellner, Ernest. 1983. *Nations and Nationalism*.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Glick Schiller, Nina, Linda Basch and Cristina Blanc-Szanton. 1992. "Transnationalism: A New Analytic Framework for Understanding Migration."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645(1): 1-24.
- Kim, Hyun Mee. 2012. "'Life on Probation': Ambiguity in the Lives of Burmese Refugees in South Korea." *Asian and Pacific Migration Journal* 21(2): 217-238.
- Lee, Sang Kook. 2001. "The Adaptation and Identities of the Karen Refugees: A Case Study of Mae La Refugee Camp in Northern Thailand." Masters Thesis.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 Lee, Sang Kook. 2012. "Scattered but Connected: Karen Refugees'

- Networking in and beyond the Thailand-Burma Borderland.”  
*Asian and Pacific Migration Journal* 21(2): 263-285.
- Lee, Sang Kook. 2014. “Security, Economy and the Modes of Refugees’ Livelihood Pursuit: Focus on Karen Refugees in Thailand.” *Asian Studies Review* 38(3): 461-479.
- Levitt, Peggy. 2001. *The Transnational Villager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McConnachie, Kirsten. 2014. *Governing Refugees: Justice, Order and Legal Pluralism*. Oxon and New York: Routledge.
- Oh, Yoon Ah. 2003. “Ethnic Consciousness and Allegiance to the State: Weak State, Weak (Ethnic) Society and the Question of Dual Loyalties in Myanmar.” Masters Thesis. Singapore: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 Oh, Yoon Ah. 2014. “Identity Politics outside Conflict Zones: Karen Identity Development in Central Myanmar during the Pre-Reform Era.” 『동아연구』 33(1): 203-236.
- Soh, Changrok and Breda Lund. 2014. “The Refugee Act of Korea: The Limits of Civil Society Influence.” 『한국정치학회보』 48(3): 5-29.
- Suh, Jiwon. 2015. “Burmese Political Activists and Human Rights in Korea.” *Korea Observer* 46(4): 751-782.
- Vertovec, Steven. 2004. “Migrant Transnationalism and Modes of Transformatio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8(3): 970-1001.
- Wimmer, Andreas, and Nina Glick Schiller. 2002. “Methodological Nationalism and Beyond: Nation-State Building, Migration and the Social Sciences.” *Global Networks* 2(4): 301-334.

Wolman, Andrew. 2013. "Korea's Refugee Act: A Critical Evaluation under International Law." *Journal of East Asia and International Law* 6: 479-495.

#### 인터넷 사이트

<http://dreamzvalley.blogspot.kr/> IKO 설명. (검색일: 2016.03.0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9012228515&code=950201](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9012228515&code=950201)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관련 기사. (검색일: 2016.03.02)

<http://www.burmalibrary.org/reg.burma/archives/199801/msg00225.html> 카렌족 새해 행사 설명. (검색일: 2016.03.22)

<http://www.knuhq.org/karen-unity/karen-national-unity-seminar/> 카렌 연합세미나 설명. (검색일: 2016.03.02)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1991&efYd=20140619#0000> 출입국관리법 관련 설명. (검색일: 2016.03.23)

(2016.04.05. 투고, 2016.05.06. 심사, 2016.05.16. 게재확정)

<국문초록>

## 비슷하되 같지 않은 길: 제한 미얀마 카렌족 공동체의 형성과 발전

이 상 국

본 논문은 한국의 카렌족이 1990년대 중반부터 현재(2016년 초)에 이르기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라에노와 모사린의 얘기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한 시기는 미얀마인을 비롯하여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와 겹친다. 모사린과 라에노는 처음에 다른 미얀마인들과 같이 어울려 지내며 비슷한 길을 갔다. 2000년 들어서 카렌족 공동체는 갈라지는 길목에 들어섰다. 여기에 KNU의 핵심인사가 독려한 초국적 자극이 크게 작용했다. 그 둘은 협력하여 2005년에 카렌족 공동체(Karen National Fellowship)를 결성하고 고유성을 발현하는 새해 행사를 기획했다. 2007년부터 카렌족 공동체 만들기는 정치색을 띠었다. 2009년 초에 카렌청년회(KYO)한국지부를 설립하여 독자적인 난민성을 표방했다. 카렌족의 초국가적 연대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2010년 이후의 한국의 난민 제도의 변화, 특히 2012년 난민법 제정으로 본격화된 난민 제삼국재정착 정책은 카렌족 공동체의 난민성과 초국가성을 강화하는 계기였다. 안팎으로 난민성은 카렌족 공동체의 핵심 성격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특히 해외 카렌족 지도자의 2015년 10월 한국 방문은 한국의 카렌족이 초국적 길을 갈 수



있도록 자극하는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이렇듯 해를 거듭하며 초국가성, 난민성, 고유성에 기반을 두고 카렌족이 독자적인 길을 구축해 왔으나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 초국적 연대를 이끌어왔던 중심인물의 부재를 겪어야 하고, 재정착 난민의 소유권을 두고는 한국 정부와 마주쳐야 하고, 고유성을 강조하는 새해 행사는 카렌족의 혼종성이 끼어들기 때문이다. 이 글은 카렌족이 그러한 한계 속에서도 주체적인 길을 걷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주제어:** 카렌족, 난민, 재정착, 초국가성, 고유성, 난민성

<Abstract>

## Similar but Not Same:

The Development of the (Myanmar) Karen Community in  
Korea

LEE Sang Kook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s how the Karen in Korea have built up their identity with a focus on the life stories of the two individuals. In early days (the 1990s), the Karen had a similar pattern of lifestyles with other Burmese in Korea. However, stepping into the 2000s the Karen were about to take a different path, prompted by the visit of a Karen politician to Korea. As a result, Karen National Fellowship was established and began to organize a Karen New Year Ceremony as an important event to promote independent identity. In early 2009 as the Korea branch of the Karen Youth Organization was set up, Karen identity became more politicized and stood upon refugeeness. A new policy environment unfolded in the 2010s, in particular a refugee resettlement program enacted in 2012 strengthened refugee identity and subsequently transnational ties among the Karen in Korea and beyond. The history of the Karen community tells that their identity building has stood upon transnationalism, uniqueness, and

refugeeness. However, they have to face obstacles in their pursuit of independent identity: the absence of an important person that used to play a big role in the establishment of transnational connection; cultural hybridity manifest in the Karen New Year; and the Korean government's engagement in resettled refugees. They are taking an independent but dynamic path in their ongoing process of identity building.

**Key Words:** Karen, Refugee, Resettlement, Transnationalism, Uniqueness, Refugeeness